

2023
VOL.577

06



도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야구인 이승엽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월간
내일

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CONTENTS

2023 June VOL. 577

- 04 **오피니언**
- 06 **고용 아카이브**
- 12 **멘토크**
 - 도전의 향연, 이제는 감독 이승엽
- 16 **레벨업 스토리**
 - 기능한국인을 만나다
 - (주)제이브라운 정영택 대표
- 20 **슬기로운 회사**
 - 일도 생활도 즐겁게! 근무혁신 우수기업
 - (주)에지솔루션
- 24 **MOEL News+**
 - K-디지털트레이닝 현장점검
- 26 **MOEL News**
- 30 **잡 큐레이션**
 - 슬기롭고 IT한 의료생활의 동반자
 -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
- 34 **취업 시크릿**
 - 취준생에게 도움 되는 독서팁 Top 4
- 36 **시네마 클래스**
 - 꼴지를 일등으로 만든 '그 도전' <에어>
- 38 **워커북**
 - 플랫폼 시대의 자기개발
- 40 **널튼**
- 42 **고용한입**
- 43 **MOEL letter**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77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한국애드

일은 도전이고 삶이다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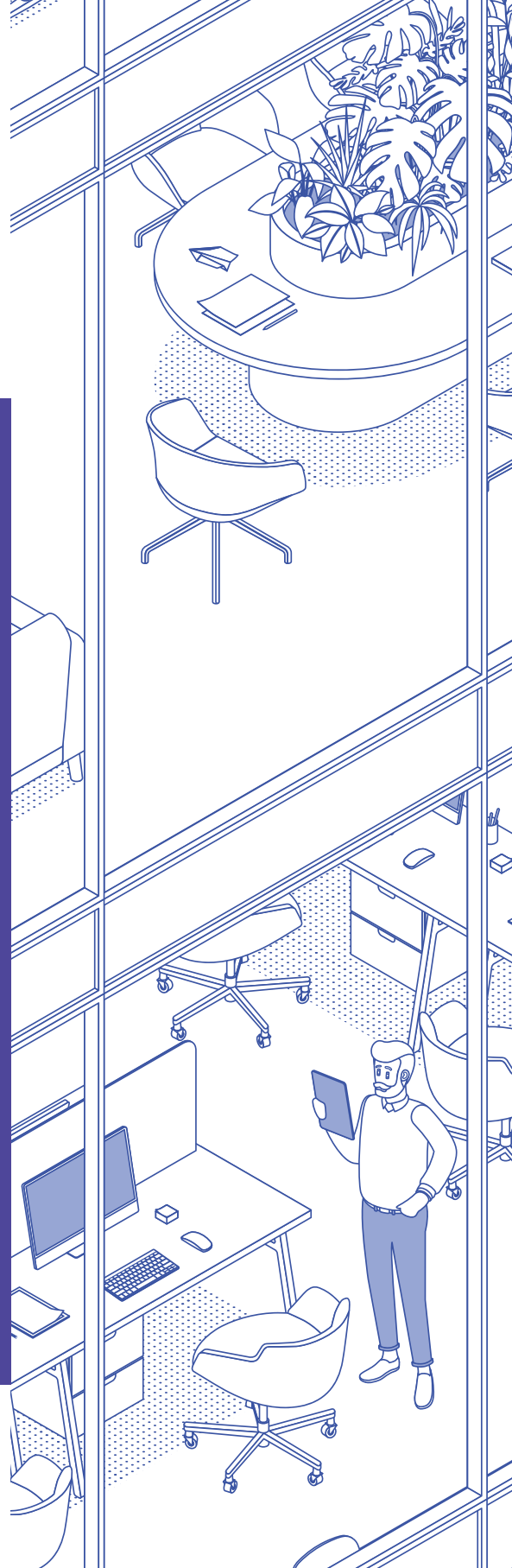
사람들은 종종 일하지 않는 삶을 꿈꾼다.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치이지 않고 일과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바란다. 그러나 일을 잃거나 떠난 사람도, 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도, 다시 일을 갈망한다. 일터 안의 사람들은 일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고, 일터 밖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일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가 말한 먹고, 자고, 입는 등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에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생업이라는 구시대 개념이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이라는 의미를 매슬로우가 말한 최고 수준의 욕구인 '자아실현 추구'로 시대전환을 해야 한다. 즉, 일은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여 스스로를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자아실현의 원동력이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사랑하고 일하고, 일하고 사랑하라. 그게 삶의 전부이다."라고 설파 했다. 당대 프로이트와 쌍벽을 이루었던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Carl Jung) 역시 "즐겁게 일하고 열심히 놀아라."라고 설파하였다.

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일해야 한다. 사랑은 인간의 본능 중 성욕이 승화된 형태이고, 일은 또 다른 본능인 공격성이 승화된 것이다. 사랑과 일을 통해 우리는 기본적 본능을 만족시키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일을 잘하기 위해 놀 수 있지만, 잘 놀기 위해 일을 할 수도 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마이클 인즐리치(Michael Inzlicht) 교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노력하여 힘든 일을 완수하는 것이 사람에게 만족과 자부심을 주며 '삶에서 얻어내는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시카고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 크리스토퍼 시(Christopher Hsee) 교수 역시 그의 연구를 통해 '일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2018년 4월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악셀 슈프링거 (Axel Springer) 2018' 시상식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의 줄임말)을 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최근 수십 년간 노동시장에서는 '워라밸'이 유행이었다. 사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이 말은 일과 삶을 분리하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은 일과 삶을 상반된 관계로 만든다. '일'은 부정적인 의미이고 '삶'은 긍정적인 의미가 된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하는 것이며,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일과 삶은 상반된 관계가 아니다. 또한, 지금은 일과 삶의 분리가 힘든 시대이다. 일과 삶의 분리가 아닌 일과 삶이 서로 어우러지는, 일과 삶이 잘 혼합되는 '워라블(Work-Life Blending의 줄임말)'이어야 한다. '워라블'에서는 일도 삶도 긍정적일 수 있다.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인 H₂O이다.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서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물이 아니다. 일도, 일 이외의 삶도 모두 합쳐 우리의 삶이다. 인생은 일, 쉼, 놀이 등이 결합체로 있는 거대한 바다이다. 이 인생의 바다에서 이를 구분하며 허우적거리는 삶과 이를 통합하여 자유자재로 유유히 헤엄치며 사는 삶은 분명 다르다. 일이든 쉼이든 놀이이든 도전이다. 일이든 쉼이든 놀이이든 자기실현의 삶을 추구하는 도구이다. 일이든 쉼이든 놀이이든 참된 의미가 부여 될 때 행복이 된다.

※ 본 칼럼은 「월간내일」 편집실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가 곧 **‘도전’**이 됩니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취업약계층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맞춤형 취업상담에서 최소한의 생계지원까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가족수당 신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를 통해 여러분의 도전(참여)를 돕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일자리 구하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들 주목!

2021년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았습니다. 1995년 도입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은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렇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 * 생계지원: **▲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월 284천원×6개월)
-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아르바이트하느라,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데 취업은 어떡하지...”
- 20대 청년 시연

“벌써 취업 준비만 2년째... 직무경험이라도 쌓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지? 요즘은 인턴도 구하기 힘든데...”
- 장기구직자 형준



“달라진 취업 시장에서 이력서 작성하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네...”
- 경력단절 여성 은경

구직자 시연, 형준, 은경의 고충에서처럼 현실에서 비용 마련, 직무 경험 부족, 준비 방향의 어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뒤에서 더욱 자세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먼저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직업심리검사**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담 상담사와 함께 적합한 기업을 알아보고 필요 역량을 개발하는 직업훈련을 진행할 수 있죠
- ✔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등에 참여하여 직업능력을 향상합니다.
- ✔ **창업준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중앙정부·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 ✔ **일경험프로그램**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체험형(1개월)과 인턴형(최대 3개월) 중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 전 실제 기업에서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컨설팅(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전문 상담사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연습을 진행해 구직기술을 더욱 알차게 익힐 수도 있죠
- ✔ **취업알선** 매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집중 알선 등을 통해 더욱 빠른 취업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 ✔ **복지연계서비스** 지자체별 복지·자활담당자, 미소금융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여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많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원내용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 수당	O		X		
		취업활동 비용	X		O		

※ 참고하세요


- 2023년도 월 중위소득 60%는 다음 표와 같아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재산요건 판단 시 다음 표의 공제액이 적용돼요.

서울시	경기도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해요.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히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I 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지급)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해요.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 I 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인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1인당 월 10만원, 월 4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급하여 참여자가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아울러, 기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이외에도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빨리 취업한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합니다.

◎ 새로운 수당이 도입됐어요!

가족수당	1인당 월 10만원, 월 40만원 한도(I 유형 시행 기간 동안)
조기취업성공수당	(I 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원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지원

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욕을 높이고 조기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나날이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후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게요.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www.ku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취업방향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들을 말씀해주시며 막막했던 저에게 취업 의욕을 북돋아 주고, 전반적인 채용 경향을 알려주어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 유형, 20대

“학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실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후, 그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까지 연계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 II 유형, 20대



“실직 후 뭐라도 제대로 배워서 취업하려고 했지만, 생계 때문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에 가족수당까지 월 90만원을 받아서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I 유형, 40대

국민타자에서 프로야구 감독으로 돌아온 야구인 이승엽이 답하다

앞선다고 방심하지 않고 뒤처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일,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도전'입니다.

은퇴한 지 3년 지났을 때부터 이승엽의 마음에는 야구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싹텄다. 이후 이승엽은 해설위원, KBO 홍보대사, 이승엽야구장학재단, 야구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말 그대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지난해 두산베어스의 11대 감독으로 취임하며 '국민타자'에서 '초보감독'으로 팬들 곁에 돌아왔다. 이승엽은 말한다 '그 간의 모든 활동이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Q. 감독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난해 가을 두산베어스 11대 감독으로 선임된 뒤 매일 선수단과 함께 호흡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4월 1일 개막한 2023시즌을 치르며, 매 경기 두산베어스 팬들에게 승리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Q. 선수와 감독은 분명 다른 직업일 텐데요. 선수에서 지도자가 되면서 느끼고 계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수 시절엔 '선수 이승엽'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는 팀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의 결과가 아닌 팀의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위치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지만, 팀 성적이 좋을 땐 그만큼 더 짜릿합니다.



Q. 선수의 세계에선 '프로'지만 감독의 세계에선 '초보' 이실 텐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내 책임일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담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비난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이는 게 목표지만 때로는 어떠한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게 감독의 몫이라고도 생각하고요.





Q. 말씀을 들으니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운동하는 선수’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본인의 결과에 책임지려는 자세는 기본일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팬을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스포츠 선수가 아닌 프로스포츠선수입니다. 프로스포츠는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2군에서 고생하던 선수들이 1군을 목표로 하는 이유도, 많은 관중의 응원과 함성을 직접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그 소중한 팬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 그러한 덕목을 구단 내 선수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계시나요?

두산베어스 선수단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팬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 후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는 분들에게 항상 사인을 해드리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프로야구 감독으로서 팬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반대로 ‘프로야구 감독’의 필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아 대답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요기 베라가 남긴 야구 격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매 순간 되새기고 있습니다. 앞선다고 방심하지 않고, 뒤처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선다고 방심하지 않고, 뒤처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힘도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아직 이렇다 할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지 못해 저 역시 고민입니다. 패한 날엔 하이라이트나 기사를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을 통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며 잠깐 야구를 잊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Q. 이승엽이라는 사람으로서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와 꿈이 궁금합니다.

언젠가 제가 유니폼을 벗었을 때 ‘언제나 치열했던 사람’이라



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진정한 노력을 위해 매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 순간 후회는 남지만, 그래도 치열하게 살았던 것만 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Q. '2023년 감독 이승엽에게 이것만큼은 기대해도 좋다' 라는 게 있으실까요?

'기운을 내다'라는 뜻의 'Hustle'과 두산베어스의 '두'가 합쳐진 말인 '허슬두'의 정신입니다. 취입식에서부터 강조한 '기본, 디테일, 팬'에 충실한 모습을 매 경기 그라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감독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팬들과 월간 내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팬 여러분과 제 인터뷰에 관심을 가져주신 월간내일 독자분들에게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144경기 장기 레이스에서 때로는 이길 때도, 때로는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응원해 주시는 함성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두산베어스 그리고 프로야구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최선을, 그라운드 밖에선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승엽 감독으로 돌아온 이승엽의 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영감을 주는 그의 자세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193번째 선정자 (주)제이브라운 정영택 대표는 과자와 빵을 제조하는 식품 분야 기술자로, 마카롱 자동 제조 시스템과 미세 실리콘 몰드 개발은 물론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과자를 만드는 디저트 전문가입니다.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한 로컬푸드 디저트 상품 개발, 제과제빵 봉사, 후학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제과-제빵업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늘 다음을 생각하며 도전하다 보니 기술인이 되었네요

2023 기능한국인, (주)제이브라운 정영택 대표



빠른 진로선택으로 기술인의 길에 들어서다

유년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에서 성장한 정 대표는 남들보다 빨리 자립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찍부터 진로를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대신 전문기술학교 1년 과정을 밟은 뒤 18살의 나이에 동네 제과점에서 제과-제빵 기술자로서의 길을 시작했죠.

이후 제과-제빵 회사에 취직하여 트렌드를 익히며 제과-제빵 기술을 연마했지만, 본사에서 보내오는 재료와 레시피를 바탕으로 단순 제품 해동과 성형, 데코레이션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을 가진 제과-제빵 기술자로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새로 취업한 호텔신라에서는 밀가루 다루는 방법부터 데코레이션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기술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호텔 디저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닌 화려한 설탕·초콜릿 공예로 꾸며진 예술작품이었고, 정 대표는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사로잡혀 디저트 공예를 시작했습니다. 정 대표는 제빵 5년, 케이크 3년, 디저트 5년 등 도합 13년의 호텔 생활을 마친 뒤, 디저트 국가대표로서 해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디저트 공예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 미술 전공 학생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더 나은 예술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2년간 매진한 끝에, 마침내 2004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월드 페이스트리 팀 챔피언십 대회에서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디저트를 만드는 예술가이자 기술자로서 뿌듯한 성과였습니다.





“처음엔 빵집 사장님이 되어야겠다, 그다음 인정받는 기술을 가져야겠다, 마침내 이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가 높았던 것이 아니었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커리어’에 있어서 만큼은 쉽 없이 도전을 거듭한 정 대표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 대표는 10대 시절부터 30대까지 제과·제빵 한 가지 기술만을 연마했던 것에 회의를 느껴 중간에 호텔을 퇴사한 적도 있습니다.

퇴사 이후 다른 직무에 도전해 보니 ‘제과·제빵 일이 나에게 정말 잘 맞았구나’하는 것과, ‘호텔

출신인데 본인만의 기술은 없나?’라는 반응에 그제야 내가 기술자로서 아직 한참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호텔에 다시 돌아간 정 대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기술자라면 개인의 발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호텔에 다시 돌아온 그는 책방을 뒤져 독학으로 디저트 공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치를 전달하는 정성스러운 디저트

디저트 공예 업계에서는 구전으로 기술을 전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 대표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도, 또 창업을 결심할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디저트 데코레이션을 가르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설탕·초콜릿 공예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학원을 설립하면서 디저트 공예 사업에 뛰어든 정 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학생들과 지상파 정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저트 제작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고, 기업의 특징을 디저트에 직접 삽입하는 협업 제품을 개발하며 급격히 성장했죠. 기업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1mm 미만의 미세한 로고와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했는데, 정 대표는 자체 실리콘 몰드를 개발하여 초콜릿 성형 방식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마카롱이 국내에 정착되기 전인 2007년부터 다채로운 맛과 모양의 마카롱을 선보이며 디저트 시장을 이끈 정 대표는 수작업으로 제조되는 마카롱의 대량 생산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정 대표는 마카롱 자동제조시스템 특허를 내면서 수작업이 아닌 기계를 사용하여 마카롱 꼬끄(Coque, 껍질의 프랑스어)를 짜내는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또 HACCP 기준에 따른 엄격한 공정으로 마카롱을 제조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마카롱은 전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 공급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지역의 특산품을 살린 디저트를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생산자와의 상생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복숭아 마카롱, 강원도 인제군의 설악산 쿠키, 강원도의 오징어 과자 등 지역 고유의 가치를 전달하는 정 대표만의 노하우를 살린 성과입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의 손기술

정 대표는 사람의 입맛과 즐거움을 위한 제과·제빵 기술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위한 일은 사람이 해야 하고, 이것이 스스로가 일에서 찾는 동기부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 대표는 기술 전승과 후학 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과·제빵 분야는 사람의 손이 귀한 만큼

정 대표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정 대표가 손기술을 가르친 학생 중 일부는, 현재 정 대표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디저트 학원에서 제자로 삼은 학생은 2008년 시즈오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고, 지금까지도 함께 일하고 있죠.

정 대표는 “단순히 과자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기술 역량을 길러왔는데, 그 시간을 인정받는 것 같아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며, 함께 즐기는 디저트처럼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기능한국인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직원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합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주)예지솔루션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근무관행을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근로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주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무혁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22년 근무혁신 우수기업 최고등급(SS등급)으로 선정된 (주)예지솔루션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를 선도하다

(주)예지솔루션은 네이버, 카카오, 에이블리 같은 유명 플랫폼들의 공식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최근 몇 년,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태블릿이나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성장세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다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주)예지솔루션의 성장 역시 눈에 띄게 진행되었죠.

(주)예지솔루션만의 특별한 점도 있습니다.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이 그것입니다. 트렌드를 읽고 잠재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기존의 마케팅 방식이었다면,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집행한 광고의 데이터를 추적하여 어떤 카피가 더 반응이 좋았는지, 어떤 키워드가

클릭당 비용(CPC)이 저렴하면서 검색량이 많았는지 등을 살펴죠. 그렇게 동일한 예산으로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예지솔루션은 2022년 AI 마케팅솔루션 '인팁'을 개발하였습니다. 인팁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고, 성과 기반의 운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팁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가장 체계화된 마케팅솔루션을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문화 역시 선도하다

㈜예지솔루션은 효율적인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지솔루션 직원들의 업무는 어떤 모습으로 이뤄질까



3one campaign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일은 내가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기본 자세로 '내 일 만큼, 내 몫 만큼, 완벽할 만큼'의 양을 충족하자



요? 재미있게도 회사의 서비스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그야말로 효율의 끝을 보여주죠.

먼저 회사는 '야근 없는 주 35시간'과 'PC-OFF 시스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니 업무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여 일을 끝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해당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땐 '영업 업무도 진행하는 마케팅의 특성상 어렵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회사는 '시간관리 캠페인'을 만들어 직원들이 주어진 근무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제도는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군다나 금요일은 오후 4시 20분 조기퇴근! ㈜예지솔루션의 직원들은 개인의 취미생활, 여행계획, 자기개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사육을 이전하면서 스마트오피스를 시행했습니다. 직원들은 출근해 사물함에서 본인의 노트북을 챙긴 뒤 앉고 싶은 자리에 앉습니다. 자율좌석제인 것이죠. 그렇게 매일 본인

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구조입니다. 신사옥에는 카페테리아, 미팅룸, 독서실 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사정이 있을 땐 재택근무도 가능하게 되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예지솔루션은 직원의 '쉼' 역시 무척 강조합니다. 2018년 처음 제주도 애월읍에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타운하우스를 마련하였고, 직원 수의 증가 및 호응에 힘입어 작년에는 제주도 남원읍에 추가로 휴양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회사는 휴가 시즌을 따로 정해두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1년 중 아무 때나 본인이 희망하는 일정에 언제든지 휴가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근무혁신이 인재혁신을 불러오다

MZ세대의 성향에 맞춘 복지 때문이었을까요?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한 ㈜예지솔루션의 꾸준한 노력으로 탄탄한 복지가 쌓여가자 어느 순간부터 회사의 입사지원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지솔루션은 그로 인해 역량 있는 인재를 영입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긍정적인 매출 성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답합니다.



“직원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 주다 보니 각자 하고 싶은 취미, 공부 등이 가능하게 되고 충분한 리프레시를 통해 다음 일정에 무리 없는 집중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되면서 성과로 연결되었습니다.”

- 민찬홍 본부장

지금도 ㈜예지솔루션의 경영진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개선할 점을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지솔루션을 통해 근무혁신 우수기업들이 다양한 노력으로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같이 이뤄가는 “같이해서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Interview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디지털마케팅영업파트 | 안태건 파트장

Q. ㈜예지솔루션에 입사한 계기는?

A.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기업들의 공식 마케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2012년 당시, 앞으로 광고시장의 중심에 온라인 시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기에 지속해서 성장해 갈 회사에 입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회사의 기업문화 중 만족스러운 부분은?

A. '35시간 근무'와 'एको홀리데이'가 만족스럽습니다. 야근 없는 35시간 근무를 통해 업무시간에는 집중력 높은 업무를, 퇴근 이후에는 여유 있는 워라밸을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에코홀리데이는 직원들의 공정한 익명투표를 통해 우리가 정하는 공식적인 전사 휴무일인데요. 샌드위치데이와 같이 공휴일에 끼인 근무일을 휴무일로 지정해서 쉬게 되니 지인들보다 여유롭게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나 꿈은?

A. 회사의 슬로건 '같이해서 가치 있는 기업'의 뜻처럼 오랜 시간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사의 이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Q.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한마디?

A. 복지가 좋은 회사에 가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회사를 선택하는 1순위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맡은 바 역할을 다하려는 자세나, 회사와 나의 발전 가능성과 같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후순위가 되면 회사 내에서 개인적인 발전을 멈추고 정체가 되는 분들을 더러 볼 수 있었거든요.

K-디지털트레이닝 반도체 인재양성 훈련현장을 찾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찾아 K-디지털 트레이닝 수업에 참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어요! 훈련생들은 개선점을 자유롭게 건의하였고,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 더욱 많은 청년이 수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먹거리와 인재양성의 필요성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에 반도체 인재양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인프라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지속하여 인력부족을 호소합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단순한 지식수준을 넘어 시시각각 주어지는 문제에 창의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K-디지털 트레이닝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고용

1 이정식 장관이 수업에 참관하여 훈련생의 프로젝트 발표를 듣고 있다.

2 이정식 장관이 훈련생과 대화를 나누며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가 직업훈련기관과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합니다. 기업에서 제시한 실전문제를 훈련생이 직접 해결해 나가는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이 주가 됩니다. 이정식 장관이 직접 찾은 현장은 하만커넥티드서비스즈인크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가 함께 설계·운영하는 '세미콘 아카데미'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세미콘 아카데미는 900시간에 걸친 장기 과정입니다. 현재까지 7개 기수를 모집했는데(기수당 정원 25명) 약 500명이 신청해 모집 경쟁률이 3:1에 이릅니다.

이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수업에 참관하여 훈련생들의 발표도 들어보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점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반도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재료공학을 전공했음에도 세미콘 아카데미 트레이닝을 받고 하반기 기업으로의 취업이 결정된 1기 훈련생 김은지 씨 사례를 통해 훈련과정의 체계성을 검토하는 한

3 이정식 장관이 청년들(훈련생)과 K-디지털 트레이닝의 개선·보완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해 추가적인 훈련을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하만·삼성·KT·우아한형제들과 같이 우수한 기업 주도형 훈련과정을 지속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첨단산업·디지털에 대한 훈련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선도국가 도약의 관건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이며, 그 경쟁력은 혁신을 견인할 인재 확보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이 인재양성의 든든한 발판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대한 지원이 1회 한정이라는 점에 많은 훈련생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파악했습니다.

훈련과정 개선 및 지속 확대 약속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훈련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T/F를 가동하고, 훈련기관에 방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훈련생들의 건의에 화답해 중급 직무 역량을 갖춘 청년이 70% 이상 심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심화과정'을 신설



Mini Interview

2기 훈련생 임우섭 씨

전기공학 학위를 취득한 이후 공백기가 길었기에 훈련 초기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커리큘럼과, 실무감각을 익힐 수 있는 퀄리티 높은 교육 내용에 지금은 취업 자신감을 많이 되찾은 상황입니다. 훈련을 80%가량 수료한 시점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건강한 일터 문화를 확산합니다

#안전보건메시지 #건강한일터



5월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 전반에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산업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

전보건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고 전국 39개 지역에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꾸려 국민적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운동에 안전·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 기관은 일상생활 곳곳에 안전보건문화를 전파하는 일에 나설 예정입니다. 협회는 전국의 소속기관 및 관련 사업장에 적합한 메시지, 이미지 등을 담은 안전보건문화 슬로건을 개발·제작(안전보건 스티커 50만 장 등)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안내 배포합니다. 또한 협회가 주관하는 안전보건 교육 시에도 영상을 활용하여 안전보건문화 의식 향상에 힘을 예정입니다.

2 불법과 특권에 엄정 대응합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규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

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되었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즉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교섭 결과로서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3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입니다

#일한만큼정당보상 #약자보호

5월 1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노동의 미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이정식 장관과 정책담당 국장, MZ세대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하여 위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



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장애인 고용을 확대합니다

#표준사업장확대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직업재활

정부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서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계획
- 공적거래법상 규제 완화로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계획
-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

-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건제도 도입 추진

-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 등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상습체불근절을 위해 상습체불사업사업주에게 정부지원을 제한합니다

#상습체불근절 #국민편의성강화 #모바일노동포털오픈



5월 3일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①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②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용자도 대폭 확대합니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용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인데요.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용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

는 경우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그 기능이 대폭 개선됩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민원 신청

▶ 노동포털(labor.moel.go.kr) 정식 오픈

또한 고용노동부는 5월 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제는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이 원스톱 제공 서비스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이 참여하고 알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이벤트



고용노동부는 국민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5월 8일, 총 49편의 수상작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10일 ~ 6월 9일 한 달간 수상작을 둘러보고 투표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편, 수상자는 6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이천여주고용센터 소식

‘국취 홍보 어디까지 해봤니? 노래하는 공무원 박건우!’

이천여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에는 노래하는 공무원 박건우 주무관이 있는데요. 박 주무관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얼마 전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여주 편>에 출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박 주무관은 “이천여주고용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구직자와 전문 상담사가 1:1로 매칭되어 취업상담을 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당당히 외치고 왔다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멋진 아이디어를 낸 박 주무관의 모습을 6월 18일, 19시 50분 본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www.ku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업이 1350 또는 국민비서 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슬기롭고 IT한 의료생활의 동반자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

Bio-Healthcare Specialist

질병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급성장 중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산업이라 불리며 미래의 유망 업종으로 평가받는데요. 바이오헬스 분야 중에서도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현대인의 슬기로운 의료생활에 도움을 주는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자 한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것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1.11.17.



‘포노 사피엔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에 익숙한 현대인을 ‘호모 사피엔스(생각하는 인간)’에 빗댄 표현입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이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대중 친화적 기술과 서비스들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자신들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와 개발에 적극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헬스 산업에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 의료기기 분야, 화장품 분야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K-바이오’라 불리며 전 세계적인 위상을 얻었고, 의료기기 분야 역시 최첨단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기술 등이 접목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기기) 및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기반으로 이미 세계 시장에 우뚝 선 화장품 업계도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헬스케어에서부터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의료 산업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은 그 범위와 용처를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등의 확산으로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기존 의료 분야를 대중의 영역에까지 확장하였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생활 밀착형인 기기와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개발하면서 그 시장 가치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융복합 의료 기기와 서비스의 기획·개발에서부터 제조와 판매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 그중에서도 일상의 발명 같은 바이오헬스케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개발자 한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란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업체 '에덴룩스'의 대표이자 개발자 박성용입니다. 전직은 의사였고, 현재는 눈 건강을 위한 AI 눈 운동 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눈을 운동시킨다는 것이 생소한데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일 스마트폰에 노출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수정체가 과도하게 경직, 경련

의료분야의
특수성과 실수요에
대한 인식이 중요
합니다.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되는데요. 이것이 눈 노화를 앞당깁니다. 바로 이 수정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저희 제품인데요. 초점거리를 바꿔주는 특수렌즈들을 통해 수정체 근육을 운동시켜 눈 근육을 강화하는 기기입니다. 평소 눈 건강을 관리해주는 웰니스 제품뿐만 아니라, 노안, 근시, 사시, 백내장 등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Q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자가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사고로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눈 근육 조절에 마비가 왔는데 명확한 치료제가 없어 막막했었습니다. 그때 '비전 테라피'라는 눈 근육 강화 운동법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3개월 만에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기술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눈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고,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Q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는 쉽게 말해 의료기와 IT(정보기술)의 융합인데, 보통 제조업 중에



서도 가장 고난도로 구분되는 의료기기에 새로운 기술까지 접목해야 해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연구개발에만 5년을 투자했고, 2년 전부터 본격적인 제품 판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Q 제품 개발자로서 이루고 싶은 직업적 목표가 있을까요.

점점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눈 상태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이전 시대의 시력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의료분야의 특수성과 실수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바이오 계열 전공자들이 좀 더 유리하겠지만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거듭되는 지난한 과정을 버텨내기 위한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 분야 자체가 많은 시간과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뎌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Q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디테일에 강한 한국인, IT 인프라 좋은 대한민국은 바이오헬스 산업이 발전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도 이제 각광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고 유망한 사업임은 확실하나, 개발 제품의 성공 확률만큼 실패할 확률도 높기에 꾸준히 연구개발과 능력 향상에 힘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오헬스 분야의 전문 인재풀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제품의 설계, 디자인, 바이오연구,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다양한 분야의 융합 산업만큼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선제적 인재 육성과 각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사업 연계 또한 필요합니다.



분야의 융합 산업만큼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향후 선제적 인재 육성, 다양한 사업 연계 등 시스템적으로 좀더 보완이 된다면 더욱 일하기 좋은 산업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직무 사전

★ **직무명**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

★ **직무정의** 기존 의료 산업에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융복합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이른바 바이오헬스케어에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 연구 개발하는 사람

★ **직무 종류**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자/설계자/디자이너,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자, 하드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 **필요 지식 및 역량** 의료 관련 전문 지식, ICT 관련 지식, 의료 시장 니즈에 대한 관심과 지식 등

★ **관련 전공** 의학과, 생명공학과, 정보통신학과 등 의료와 생명, 정보기술 관련 모든 학과

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서는 영어 시험, 자격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 등 준비해야 할 게 아주 많습니다. 최근 기업마다 자기소개서 문항이 다양해지고 면접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보는 경우가 많아져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지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끝내는 것만으로는 책을 최대한 잘 활용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권의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름의 요령이 필요한데요. 취준생의 논리력 향상을 위한 독서팁 TOP4를 알아볼까요?



취준생이

알아두면 좋은 독서팁 TOP 4

논리적인 생각과 매끄러운 글은 독서로부터!

① 메모하며 읽기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면서 읽습니다. 메모는 책의 주제를 이해하고 내용의 기승전결을 정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 아무리 좋은 문장이나 중요한 내용이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메모를 해두면 책을 읽다가 중요한 내용을 다시 봐야 할 때 책장을 일일이 넘기며 찾지 않아도 되고, 책을 덮은 이후에도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꺼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를 하면 책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책의 논리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책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머리말(서문)과 차례 꼭 읽기

책의 머리말(서문)에는 저자가 책을 쓴 목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전 저자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독서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머리말을 읽은 후 독서를 하면 책을 비판적으로 읽을지, 책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지, 저자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며 읽을지 등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의 차례에서는 책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를 미리 살펴볼 수 있어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전개되는지를 미리 알면 책을 더욱 쉽게 읽을 수 있기도 하죠.



3 분석적으로 읽기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검색 포털이나 백과사전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책의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추가적인 지식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책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자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저자의 주장은 논리적인지 등을 따져보며 독서를 하면 분석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잘 표현되었는지, 어떤 부분의 표현이 어색한지, 나는 어떻게 상황이나 감정 등을 표현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4 독후감 쓰기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독후감을 씁니다. 독후감을 쓸 때는 읽은 내용의 요점, 읽은 후의 느낌 등을 정리합니다. 또한 요점 정리나 느낌 서술을 넘어 작가의 생각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글의 구성, 책의 가치 등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평하면서 독후감을 작성하면 논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독후감을 쓰면 내가 책을 읽을 때 어떤 것을 깨달고 느꼈는지, 그리고 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알 수 있어서 나의 변화와 성장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독후감을 쓰면 논리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글쓰기 실력도 기를 수 있어서 취준생에게 더없이 좋은 활동이랍니다.





개봉 2023.04.05.
장르 드라마

감독 벤 애플렉
주역 소니 바카로 역
 맷 데이먼
 필 나이트 역
 벤 애플렉
출연 제이슨 베이트먼
 말론 웨이언스
 크리스 메시나 등

규칙을 깨야 기억되겠지, 마이클을 데려와!

AIR

에어 AIR

미국 대학농구리그 NCAA 결승전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우승을 이끌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마이클 조던. 컨버스와 아디다스에 밀려 시장점유율 18%에 불과했던 나이키. 영화 <에어>는 1980년대 꼴찌 스니커즈 브랜드였던 나이키를 일약 1등으로 끌어올린 에어 조던 신화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다.

미국 대학농구리그 NCAA 결승전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우승을 이끌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마이클 조던. 컨버스와 아디다스에 밀려 시장점유율 18%에 불과했던 나이키. 영화 <에어>는

1980년대 꼴찌 스니커즈 브랜드였던 나이키를 일약 1등으로 끌어올린 에어 조던 신화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다.
1984년 당시 나이키는 농구를 비주류 스포츠로

취급하고 있었고, 러닝화 시장마저 리복에 뒤쳐진 상태였다. 나이키의 농구화 사업부 스카우터 소니 바카로 눈에 들어온 건 새롭게 떠오르는 루키 '마이클 조던'. 소니 바카로는 마이클 조던을 새로운 모델로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간단치 않다. 마이클 조던의 몸값을 감당하기 힘든 예산 구조와 무엇보다 마이클 조던과 그의 어머니가 아디다스를 선호한다는 것. 내부에선 여러 명의 스타를 기용한 NBA 플레이어 시리즈를 기획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 한다. 소니는 조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나이키는 조던과 함께 점프하는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바카로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마이클 조던과 어머니 들로리스 조던을 설득한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잊히겠지만, 당신만 빼고" 이 매력적인 말에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바카로의 사활을 건 노력을 높이 산 나이키는 NBA 플레이어 시리즈 예산 25만 달러를 에어조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 둘이 함께 써 내려갈 에어조던 신화의 시작이다. 소니 바카로는 마이클 조던에게 말한다. "우리는 당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 거고, 당신은 세상을 바꿀 거예요" 결국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와 계약

하게 되고, 바카로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였으며 에어조던 시리즈는 80년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 오는 신발 아니, 문화가 되었다. 에어조던1은 판매 첫해에 1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다. 이후 나이키는 기어코 컨버스를 인수하면서 농구화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하게 된다. 그 기세를 몰아 나이키는 스포츠 의류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과시하며 명실상부한 스포츠 1위 브랜드로 자리 잡는다.

흥미로운 건 에어조던1이 당시 NBA 규정에 수록된 색상구조 원칙을 위반한 농구화였다는 점이다. 즉 마이클 조던이 빨간색인 에어조던1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면 벌금 5000달러를 협회에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나이키는 벌금 5000달러를 매 경기마다 지불하겠다는 파격적인 조항까지 포함한 계약서를 마이클 조던에게 내밀었다(나이키가 홍보를 위해 부풀린 이야기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마이클 조던은 NBA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하얀색 에어조던1을 신고 경기에 나섰다). 이후 수많은 NBA 스타들은 자신을 모델로 한 농구화를 제작할 때마다 에어조던1의 사례를 들며 상당한 금액의 개런티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마이클 조던이 신기 전엔, 신발은 그저 신발일 뿐이다



살아남고 싶다면 혁신하라

나이키 CEO 필 나이트에게 마이클 조던은 생존을 위한 위대한 도박이었다. 여러 명의 스포츠 스타와 계약해 위험을 분산하던 관행을 파괴했다. 혁신이란 이런 것. 조던과 나이키의 계약조건은 스포츠용품 업계에 전례가 없는 사례로 당시 라이선스 구조를 철저히 무시한 계약으로 회자되고 있다. 에어조던1은 기존의 틀을 과감히 부수며 유행을 넘어 문화가 되었다. NBA의 흥행과 조던의 가능성을 예감한 나이키의 선택은 지속적 개선이 아닌 파괴적 혁신을 부르짖은 21세기 '창조적 혁신'의 거장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게 한다. 운동화 브랜드의 전설이 되었고 현재도 굳건하게 1위를 지키는 나이키. 에어조던은 단순한 스니커즈 운동화가 아니었다. 혁신을 넘어서면 마침내 문화가 된다.

12:37



DIGITAL PLATFORM

나만의 선생님을 찾아서 플랫폼 시대의 자기개발

디지털 산업에서의 플랫폼은 이용자와 제공자를 이어주어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뜻합니다. 최근 수많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사람들이 단순히 무언가를 사고파는 것을 넘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며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은 서비스 교환 수단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요즘 직장인들은 평균수명 증가, 경제적 자유, N잡 등의 이유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도 하고, 삶을 보다 풍성하게 꾸기기 위해 일 외에 다양한 취미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플랫폼이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은 직장인의 자기개발에 빠질 수 없는 선택지가 된 것이죠. 지금부터 직장인의 자기개발을 돕는 플랫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직자 멘토링 플랫폼(Mentoring)

다른 분야로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나 기업에 대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야나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관련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직 준비로 인해 궁금증과 고민을 한가득 안고 있다면 현직자 멘토링 플랫폼을 추천합니다. 현직자 멘토링 플랫폼은 현직자만 알고 있는 취업 정보를 볼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들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어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과 취업 준비 과정이 담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1:1 멘토링 서비스, 라이브 교육, 직무부트캠프, 실무 교육 및 프로젝트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직자 멘토링 플랫폼으로는 **잇다**, **코멘토** 등이 있습니다.



교육 플랫폼(Education)

예전에는 강의를 듣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야 했다면 지금은 스마트기기로 플랫폼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강의를 골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취업 및 이직 준비생과 현직자를 위한 직무 역량 강의를 물론 일러스트, 웹툰, 이모티콘 제작과 같은 디지털 드로잉 강의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댄스, 베이킹, 필라테스 등 무궁무진한 분야의 강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명인의 강의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들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플랫폼에 따라 월 구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월정액으로 원하는 강의를 무한대로 수강할 수 있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플랫폼으로는 **클래스101**, **스터디파이**, **인프런** 등이 있습니다.



독서 플랫폼(Reading)

독서는 직장인에게 가장 손쉬운 자기계발 방법입니다. 책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등장하면서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는 대신 가벼운 스마트기기 하나만으로 편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플랫폼에 따라 성우의 실감 나는 연기가 더해진 오디오북도 들을 수 있죠.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든 책을 읽을 수 있고, 추가 요금을 내면 종이로 된 서적을 격월로 보내주는 등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서 플랫폼으로는 **리디**, **밀리의 서재**, **윌라 오디오북** 등이 있습니다.

취미 플랫폼(Hobby)

취미는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취미는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행복의 원천이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취미 생활을 즐기곤 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에게 취미란 기분전환과 재충전의 시간을 안겨 주는 소중한 활동이기도 하죠. 취미 생활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혼자서 지속한다면 흐지부지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취미 플랫폼인데요. 취미 플랫폼에서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취미 공유 및 모임 서비스부터 취미 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참석할 수 있는 취미 클래스 서비스 등 취미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취미 플랫폼으로는 **소모임**, **프립**, **숨씨당** 등이 있습니다.

넬튼

글·그림
박성은

에피소드 1

세상의 모든 취준생에게



취준생 시절의 나는 항상 불안했다.



앞서가는 주변인들을 보며 조금씩지고,



때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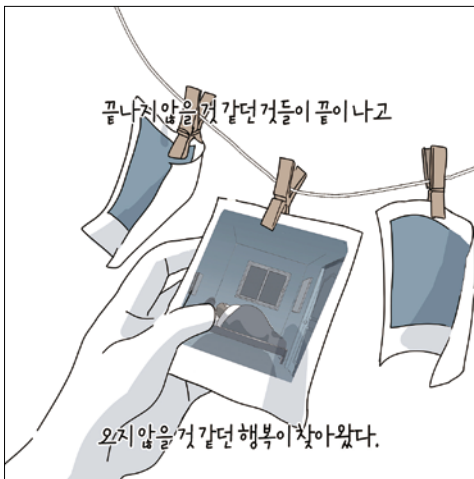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날에는
좌인이 된 것만 같았던 시간의 연속

그곳에 취직하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
밤마다 울었던 나는



시간이 지나야 예뻐라 문 밖에 서서 일하고 있고

쏟아져 내릴 것 같던 것들이 끝나고



오지 않을 것 같던 행복이 찾아왔다.

춥고 비내리지 않는 겨울에도 꽃은 핀다.



그러니 힘들어도 자신을 꺾어버리지 말길.
우리 모두 겨울에 피는 꽃이다.

에피소드 2

진로 고민 속 길 찾기



살면서 계속하는 고민 중 하나가
진로 고민인 것 같다.

이건 학생 때도, 취준생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그랬고,



특히나 내가 잘할 거라 믿었던 분야에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 그랬다.

나는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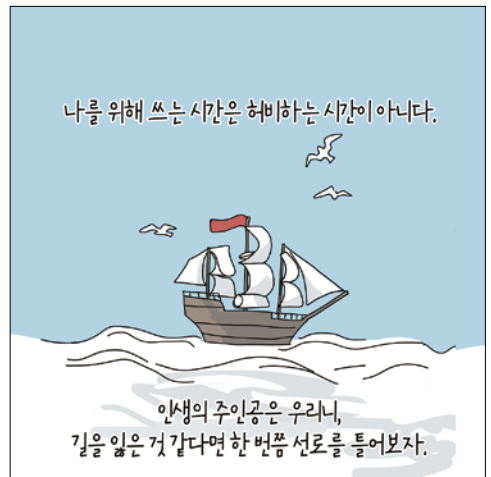
내가 무엇에 좋아하는지, 어떤 때 스트레스를 받을지
같이 생각하고 기록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려고 했다.



혹은
모아놓은 돈을 로스팅 싶은 만큼 쉬었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니,
길을 잃은 것 같다면 한 번쯤 선로를 틀어보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서 노무제공자란 ①근로자가 아니면서 ②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 중에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 19개의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22.7.1. 기준)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화물차추(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택배 자-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유통배송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캐디



고용보험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스타그램

웹진에서 만나는 #일스타그램 이벤트

여러분의 일은 어떠신가요?
 자랑하고픈 근무 환경, 든든한 나의 동료,
 보람찬 나의 업무, 노력이 묻어나는 구직활동까지.
 <월간내일>에서 구독자들 저마다의 '일'을 모두와 공유하며
 함께 공감하고, 웃고, 즐겨 보아요.



참여방법

- 1.인스타그램에 나의 '일'을 표현하는 사진을 선택한다.
 - 2.본문에는 관련 코멘트와 함께 해시태그 '#월간내일_일스타그램'을 필수 기재하여 게시한다.
- *비공개 계정은 참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참여혜택

참여 게시물이 해당 웹진에 게재될 시, 디지털 쿠폰을 지급합니다.
 당첨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0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웹진 바로가기

02

왼쪽의 늘봄이(QUICK MENU)를 클릭
 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